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29.(화) 11:00 < 8.29.(화) 석간 > 배포 2023. 8. 2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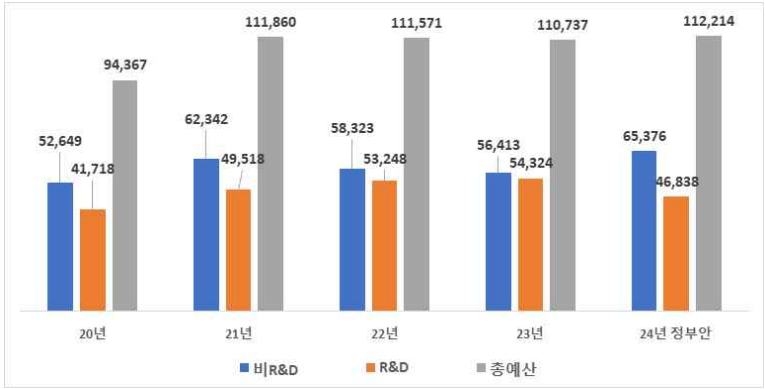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1.2조 원 편성

-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회복 -
-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
-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 원 대비 1,477억 원(1.3%↑)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 원) >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배준형 (044-203-5520)
		담당자	사무관	정성훈 (044-203-5516)
			주무관	강민구 (044-203-5517)
			주무관	허진혁 (044-203-55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분야별 편성내역 및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 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 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 1,11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분야별 예산(본예산 기준, 억원) >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❶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❷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❸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

❶ **(첨단산업)** 우리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2023년 1조 9,388억원에서 2024년 2조 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 (기술혁신 융자)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설하여,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 ('24, 신규) 100,000백만원

- (특화단지)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2024년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 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 : ('24, 신규) 15,406백만원

- (외국인 투자지원)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4월 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한도를 확대(최대 40% → 최대 50%)하고 국비 분담률을 상향(수도권 40%→50%, 비수도권 70% → 80%)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내년도에는 현금지원 전체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 투자유치기반조성 : ('23) 156,905백만원 → ('24) 357,914백만원(128.1%↑)
    ↳ 현금지원 : ('23) 50,000백만원 → ('24) 200,000백만원(300%↑)

- (현장인력 공급) 첨단산업 인력 양성 및 적기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배터리 산업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연간 600명을 교육하고, 기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원도 올해 52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며 교육 장비 구축도 지원한다.

  * 배터리아카데미구축 : ('24, 신규) 3,710백만원
  * 반도체아카데미구축 : ('23) 2,300백만원 → ('24) 4,260백만원(85.2%↑)

- (전문인력 양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과제를 신설하는 등 산업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하여 첨단산업 기술·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 ('23) 135,658백만원 → ('24) 157,479백만원(16.1%↑)
  *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사업 : ('24, 신규) 6,089백만원

- (업종별 지원) 6대 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업종별로도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을 강화한다.

  *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R&D) : ('24, 신규) 14,000백만원
  *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 : ('23) 6,380백만원 → ('24) 9,325백만원(46.2%↑)
  * 저가격·장수명나트륨이차전지핵심소재및셀제조기술개발(R&D) : ('24, 신규) 2,600백만원
  *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구축지원 : ('23) 1,500백만원 → ('24) 6,000백만원(300%↑)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R&D) : ('23) 118,621백만원 → ('24) 164,473백만원(38.7%↑)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R&D) : ('24, 신규) 10,777백만원
  *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 ('23) 234,510백만원 → ('24) 342,408백만원(46.0%↑)
  * 수출주도미래차산업혁신성장기술지원 : ('24, 신규) 3,000백만원
  * 로봇산업기술개발(R&D) : ('23) 106,948백만원 → ('24) 117,442백만원(9.8%↑)
  *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 ('23) 62,570백만원 → ('24) 62,707백만원(0.2%↑)

❷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2023년 1조 3,267억원에서 2024년 1조 3,476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

  * 소재부품기술개발(R&D) : ('23) 937,563백만원 → ('24) 1,141,045백만원(21.7%↑)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 ('23) 174,000백만원 → ('24) 184,400백만원(6.0%↑)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 ('23) 1,581백만원 → ('24) 1,901백만원(20.2%↑)

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적극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산업단지 환경개선) 8월 24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 캠퍼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3대 킬러 규제를 혁파하기로 한 것에 이어 내년도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지역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23년 대비 약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확대하여 노후산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문화생활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 산업단지환경조성 : ('23) 308,718백만원 → ('24) 387,197백만원(25.4%↑)
    ↳ 산단환경개선펀드: ('23) 95,848백만원 → ('24) 186,770백만원(94.9%↑)
    ↳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조성 : ('23) 42,165백만원 → ('24) 50,992백만원(20.9%↑)

- (지역투자 보조) 기업이 지방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지역에 신·증설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1%p 상향(3%~44% ⇒ 4%~45%) 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중견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p 상향(0%~25% ⇒ 5%~30%) 한다.

  * 지역투자촉진 : ('23) 199,834백만원 → ('24) 208,826백만원(4.5%↑)
  * 지역투자촉진(세종) : ('23) 3,328백만원 → ('24) 3,860백만원(16.0%↑)

<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조기 완성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

❶ **(원전 생태계)**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 (원전 중소·중견 지원)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 ('24, 신규) 100,000백만원
  *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 : ('24, 신규) 5,785백만원
  *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 ('23) 8,889백만원 → ('24) 11,208백만원(26.1%↑)

- (원전 수출)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 ('23) 7,745백만원 → ('24) 8,463백만원(9.3%↑)
  * 원전수출보증 : ('24, 신규) 25,000백만원

- (원전 R&D, 해체, 방폐물관리)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충분히 반영하였다.

  *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R&D) : ('23) 3,870백만원 → ('24) 33,280백만원(760%↑)
  *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 : ('23) 33,734백만원 → ('24) 43,313백만원(28.4%↑)
  *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 ('23) 52,767백만원 → ('24) 81,798백만원(55.0%↑)

❷ **(공급망 안정)**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확대한다.

- (핵심광물·석유 비축)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하여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다.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 ('23) 37,232백만원 → ('24) 233,062백만원(526%↑)
  * 석유비축사업출자 : ('23) 67,268백만원 → ('24) 66,595백만원(△1.0%)

- (국내·외 자원개발)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 '24년 예산안 >

사 업 명	부 문	'23년	'24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 투자위험보증 제외	융자비율	30%	최대 50%
	예산규모	36,308백만원	39,817백만원
유전개발사업출자	출자율	최대 40%	최대 50%
	예산규모	30,130백만원	48,140백만원

  *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R&D) : ('23) 2,992백만원 → ('24) 6,319백만원(111.2%↑)
  * 저품위염호대상리튬추출및소재화기술개발(R&D) : ('24, 신규) 4,400백만원

❸ **(에너지 복지·효율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1조 259억원에서 2024년 1조 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한다.

  * 에너지바우처 : ('23) 190,963백만원 → ('24) 685,606백만원(259%↑)

- (에너지 효율) 올해 여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9만대에서 내년 약 4.5만대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 전력효율향상 : ('23) 51,802백만원 → ('24) 163,374백만원(215.4%↑)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 ('23) 263,334백만원 → ('24) 294,575백만원(11.9%↑)

< 수출 총력 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 >

❶ **(수출 총력 증대)**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부의 수출지원 예산 규모를 2023년 6,077억원에서 2024년 6,853억원으로 확대한다.

- (수출 애로 해소)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 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및 전문무역상사의 대행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인증 획득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3) 302,911백만원 → ('24) 321,275백만원(6.1%↑)
* 수출경쟁력강화지원 : ('23) 37,185백만원 → ('24) 42,612백만원(14.6%↑)
* 수출지원기반활용 : ('23) 77,394백만원 → ('24) 83,420백만원(7.8%↑)
* (신규)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 ('24, 신규) 1,860백만원

- (프로젝트 수출)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예산을 출연한다. 플랜트, 방산 등 수출지원 예산도 확대하였다.

* 무역보험기금출연 : ('23) 50,000백만원 → ('24) 95,000백만원(90%↑)
* 해외플랜트진출확대 : ('23) 8,698백만원 → ('24) 8,974백만원(3.2%↑)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운영 : ('23) 1,375백만원 → ('24) 1,399백만원(1.7%↑)

❷ **(통상·ODA)**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ODA를 추진한다. 통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EU와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 등 ODA 사업(6개 사업) 전체 규모도 2023년 706억원에서 2024년 979억원으로 확대한다.

* 양자산업협력 : ('23) 8,335백만원 → ('24) 8,111백만원(△2.7%)
  ↳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 ('24, 신규) 700백만원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 ('23) 43,331백만원 → ('24) 69,584백만원(60.6%↑)